



**KBS** + 정종완 · KBS 기술관리국 기술기획팀

# ROCK WILL NEVER DIE! METALLICA Live Shit: Binge & Purge, 1993

25년이라는 짧지 않은 긴 시간동안 줄곧 “락(ROCK)”이라는 길을 걸어온 메탈리카는 분명 누구누구의 영웅이었고, 80~90년대를 이어 밀레니엄 세대에 이르러 수많은 팝음악 시장에 타협하지 않는 멋진 뮤지션임에 틀림없다. 데뷔앨범 “kill'em all”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락 음악은 저항적인 반사회적인 이미지로 부각 되기 시작한건 분명한 사실이다.



흔히 인연이란 현재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어느 날 느낄 수 있으며, 그때 다시 돌아본 인연은 분명 내가 싫지 않았음을,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만들게 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낚두리를 할 때면 헤어질 무렵 아지랑이처럼 먼 기억 속의 그 인연을 꼬집어낸다. 참으로 우스운 건 이 인연이란 것이 비단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음악에서도 마찬가지로라는 얘기가. 유독 필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첫 키스의 달콤함과 집착의 연속은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고, 마침내 하나의 삶이 되고, 헤어지지 못하는 것처럼 기어이 첫 인연과는 가느다란 케이블을 사이에 두고 영원히 속삭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동안 5회에 걸쳐 두서없이 소개해드린 거침없는 DVD 음반들을 뒤로하고, 이제 마지막 DVD음반을 소개하려 한다. 바로 메탈리카(METALLICA)이다.



## Rock과 Trash Metal의 특징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의 락큰롤(Rock n Roll), 영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레드제플린(Led Zeppelin), 딥퍼플(Deep Purple), 레인보우(Rainbow) 등 1950년대를 전후로 등장한 락 음악은 클래식과 재즈, 펑키 등 다양한 팝뮤직과 혼재되어 헤비 메탈(Heavy Metal)이라는 독립 브랜드를 탄생시킨다.

심지어 대놓고 헤비 메탈이라는 독립 브랜드에 대한 제품소개를 한 이들이 있었으니, Judas Priest의 "Heavy Metal"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이런 가사가 나온다.



*뜨거운 충격파가 공중을 채우고(Hot shock waves charge the air)  
모든 이들이 헤드뱅잉을 하고 있어(All heads are banging)  
어딜 가나 주먹들이 힘차게 하늘을 찌르고(Fists pumping everywhere)  
기타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어(Guitars are cranking)  
헤비 메탈, 헤비 메탈(Heavy Metal, Heavy Metal)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것 아닌가(What do you want)*

[Heavy Metal을 연주하는 주다스 프리스트]

80년대 중반을 넘어서는 스래쉬 메탈(Trash Metal)이라는 장르가 헤비 메탈(Heavy Metal)의 중요한 영역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드록(Hard Rock)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된 것이 헤비 메탈이라면 스래쉬 메탈은 70년대 중반부에서 후반의 펑크록(Punk Rock)과 NWOBHM(New Wave Of British Heavy Metal, 영국 헤비 메탈의 새 조류) 시대의 음악가인 모터 헤드(Motor Head), 베놈(Venom) 등을 시초로 하여 더욱 과격히 발전시켜 도저히 그 음악적 원류를 찾을 수 없는 급템포(fast tempos)의 살벌한 속도와 변칙적인 리듬으로 음악을 전개한다.

고속의 스피드를 주로 한 과격한 사운드와 가사내용이 특징인 메탈 음악은 기본 속성인 금속적인 사운드가 매우 공격적으로 부각되고, 하나같이 공격적이고 강렬한 기타리프가 메인인 이주면서 이후에 현란한 기타속주로 넘어가게 된다. 완전한 형태를 갖춘 스래쉬 메탈이 등장한 것은 슬레이어(Slayer)와 메탈리카를 통해서였다. 슬레이어는 데뷔 앨범 "Show No Mercy"에서 그라인드 코어(Grind Core) 경향의 살인적인 스피드 메탈(Speed Metal)을 연주한다. 보컬은 동물적으로 노래하고(growling 창법), 드럼과 다른 악기들 역시 '음악을 한다'는 차원이 아닌 '본능적인 욕구해소' 또는 그 이상의 관점에서 연주를 펼친다. 이런 음악적 특성은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얼터너티브 락(Alternative Rock)의 시대가 도래하고, 헤비 메탈 시장이 서서히 사장되면서 그 음악적 특성 자체도 원 색채를 잃게 됐다.

메탈리카의 데뷔 앨범 "Kill 'Em All"은 스래쉬 리프(Trash Riff)를 형상화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했다. 이들은 "Ride The Lightning", "Master Of Puppets", "...And Justic For All" 등의 앨범을 공개하며, 유명한 다운피킹(Down Picking) 방식에 의한 스래쉬 리프를 구체화 했다. 여태키한 부분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다운피킹 리프 방식은 기관총을 쏘는 듯 한 효과를 자아내 팬들에게 메탈리카의 음악을 더욱 인상적으로 남게 할 수 있었다.

슬레이어와 메탈리카에 의해 구체화된 스래쉬 메탈은 이후 많은 밴드들에 의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시대적인 트렌드와 사회현상이라 볼릴 수 있는 스래쉬 메탈의 출현은 현대 사회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인스턴트화 되어 가는 대중사회의 생활패턴, 스트레스, 도시화에 따른 특유의 단절감, 고층빌딩과 아파트 문화에서 나타나는 밀폐된 인간관계 등, 이 모든 것들은 현대인의 감정을 단순하면서도 화끈한 것으로 눈 돌리게 한다. 그래서, 헤비 메탈은 그 모양새가 더욱 강하고 화끈해지고 목소리는 빨라졌다. 더욱 두터운 단절은 더욱 강한 자극을 원한다.

일반적으로 부수고 승리하는 아놀드 슈왈츠네거의 막강한 원력과 람보의 '씩술이' 식 전쟁 놀음도 이러한 사회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앞뒤 안 가리고 두들겨 부순다'는 뜻의 'Thrash'에서 나온 스래쉬 메탈도 결국 람보나 터미네이터와 같은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는 대중음악의 한 현상인 것이다. 팬들이 스래쉬 메탈을 찾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거기에는 가슴이 후련해지는 통쾌함이 있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회가 요구하는 온갖 복잡한 법칙이나 공식에 얽매임 없이 순간을 소멸시킬 수 있다. 헤비 메탈이 강도 70의 수준으로 이것을 풀려고 한다면 스래쉬 메탈은 강도 100의 수준에서 이것을 풀려고 하는 셈이다.

### Trash Metal과 METALLICA

25년이라는 짧지 않은 긴 시간동안 줄곧 "락(ROCK)"이라는 길을 걸어온 메탈리카는 분명 누구누구의 영웅이었고, 80~90년대를 이어 밀레니엄 세대에 이르러 수많은 팝음악 시장에 타협하지 않는 멋진 뮤지션임에 틀림없다.

데뷔앨범 "kill'em all"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락 음악은 저항적인 반사회적인 이미지로 부각되기 시작한건 분명한 사실이다.

메가데스(Megadeth)/슬레이어(Slayer)/엔스랙스(Anthrax)와 더불어 Trash Metal계의 4대 거장에 손꼽히고 있으며, 가장 대중적으로 성공한 밴드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까지 정규앨범 9장과 더불어 미국 그래미 어워드를 7번이나 수상한 어찌 보면 대중가수보다도 더 대중적인 밴드가 되어버린 메탈리카이다. 전 세계적으로 통산 9500만장 판매고를 기록한 밴드로 2003년에는 MTV Icon에 출연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1998년 4월 24~25일과 2006년 8월 15일 내한공연을 한바가 있다.



[1983년 데뷔당시 메탈리카]



[결성 25주년 무대의 메탈리카]

메탈리카라는 밴드의 스타일과 가사 테마를 잠시 살펴보면, 다분히 영국의 락 밴드를 모티브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블랙 사바스(Black Sabbath), 딥 퍼플(Deep purple), 레드 제플린(Led zepplin) 등의 하드락 밴드와 베놈(Venom), 모터 헤드(Motor Head), 다이아몬드 헤드(Diamond Head), 주다스 프리스트(Judas Priest), 아이언 메이든(Iron Maiden) 등의 뉴 메탈 밴드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웅장하고 진보적인 곡 전개, 타이트하고 함축적인 그루브"로 대표되는 이러한 음악 스타일은 종교, 군대, 정신분열, 마약 등 사회비판적인 가사와 함께 그 특징을 대표한다. 메탈리카의 대표곡인 "Masster of Puppel"을 들으면 이 모든 가사의 핵심을 알 수 있다.

*End of passion play, crumbling away(열정의 시간이 지나 허무하게 사라져가면)*

*I'm your source of self-destruction(나는 네가 스스로 파괴되도록 하는 원인이 되지)*

*Veins that pump with fear, sucking darkest clear(두려움으로 뛰는 혈관이 사악한 것을 깨끗이 빨아들이면)*

*Leading on your death's construction(너는 죽음의 길로 인도되는 거야)*

1991년 새로운 프로듀서 밥 락(Bob Rock)을 맞이하면서, 메탈리카는 다소 대중적이고 심플한 스타일을 구사하게 된다. 공격적이고 빠른 템포에서 광범위한 음악 장르로 확장한 것이다.

심지어 90년대의 트렌드인 얼터너티브 락이라고까지 평가받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부분의 팬들은 분명 그들의 짧은 머리 스타일은 "스래시 메탈의 변절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라고까지 혹평했지만 그들의 대중적 지지와 상업적 소득은 압도적이었다. 심지어 1997년도 "ReLoad" 앨범엔 블루스(blues)와 초기 하드 락(early hard rock) 스타일을 구사하기까지 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들의 또 하나 거대한 변화를 걷게 되는데, 바로 원시적인 스타일로의 전환이다. 락 음악의 전매특허인 기타-솔로(Guitar-solos)를 생략하고 다수의 마이킹에서 스페이스 마이킹 방법을 이용하여 좀 더 둔탁한 드럼 수음을 채택하는 등 가사마저도 이제는 마약금지, 악마숭배금지 등 교훈적인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

현존하는 최고 락 밴드 중 하나인 Korn의 보컬리스트 Jonathan Davis는 메탈리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지난 세월동안 그 형식을 보존한 작금의 가장 위대한 밴드다(They've done things their own way and they've persevered over the years and they're still relevant to this day. I think they're one of the greatest bands ever.)"

이처럼 그들은 음악은 수많은 Metal Kids(락 초보연주자들)에게 신 같은 존재로 추앙받아 오고 있으며, 미국의 MTV수상식에 때때로 후배 밴드와 뮤지션들이 메탈리카 리메이크 공연을 할 정도이고 현재까지 15장이 넘는 트뤼비트 앨범이 발매됐다. 90년대 후반 국내 모 레코드에서도 메탈리카 트리뷰트 앨범이 나올 정도였으니, 그들의 전 세계적인 입지는 가히 어느 팝가수 못 지 않다.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미국 TV애니메이션의 간판 프로그램인 "The Simpsons"의 18번째 시즌 프리미어인

"The Mook, the Chef, the Wife and Her Homer"에 기타리스트인 Kirk Hammett와 James Hetfield의 음성과 함께 모든 멤버가 등장했다고 한다.

90년대 후반, 메탈리카는 하나의 획극적이고 풍자적인 롤 뮤지션으로 표현되기 시작하는데 "Apocalyptica"라는 4대의 첼로로 구성된 어쿠스틱 밴드는 메탈리카 트리뷰트 앨범을, "Beatallica"라는 밴드는 비틀즈와 메탈리카의 음악을 조합한 패러디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다.



[The simpson에 등장한 메탈리카]

### 공연 음향 및 악기세팅

1992년 샌디에고의 스포츠 경기장에서 열린 본 공연은 추운 겨울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경기장 중앙에 위치한 스테이지를 중심으로 모든 객석에 8방향으로 스피커를 어레이했으며, 역동적인 밴드의 퍼포먼스를 위해 모든 멤버들은 무선마이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공연장 무대전경]



[객석의 모든 방향에 ARRAY되어 있는 스피커]



[드럼세트 상단에서 잡은 공연무대]

### Guitar Setting

ESP엔도서인 기타리스트 제임스 헛필드와 커크 헤밋은 다수의 ESP explorer 시리즈로 세팅되어 있으며, 메사부기(Mesaboogie) 마크 프리앰프와 마샬(Marshall)/메사부기(Mesaboogie) 파워 헤드 및 케비넷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컬, 기타의 James Hetfield]



[기타리스트 Kirk Hamm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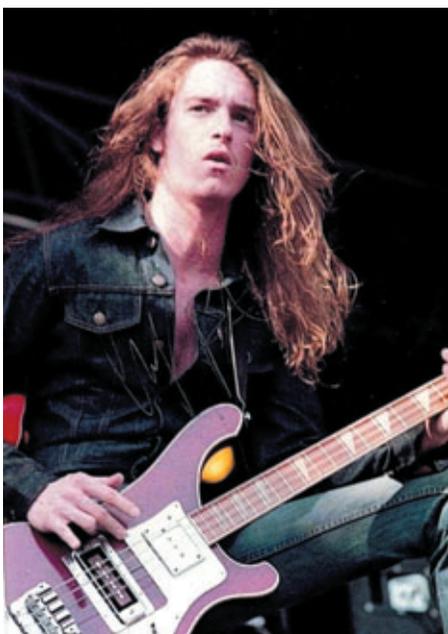


[앰프 랙 및 이펙터 컨트롤러]

### Bass Setting

메탈리카의 베이스트는 현재까지 총 3명의 베이스 연주자가 거쳐 갔다. 하지만, 초창기 클리프 버튼(Cliff Burton)의 리켄 베커(Rickkenbeker) 사운드만큼 중후하고 원시적인 톤은 드물 듯 싶다.

특히, 클리프 버튼(Cliff Burton)의 리켄베커(Rickkenbeker) 4001(1978년산)의 경우, 프론트 픽업에 깃슨 EB-0 험버커 픽업과 리어 픽업에 디마지오 핫재즈 베이스 픽업을 장착했다. 그런데, 이것은 요즘의 피에조 픽업(PIEZZO Pick Up)의 역할처럼 스트라토캐스터 기타 픽업을 장착했다고 하니, 그의 Wah & Distortion 사운드와 더불어 창조적인 사운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Cliff burton의 Rickenbeker 베이스와 three 픽업 세팅]



[Jason Newsted의 Shadowsky 베이스와 Ampeg bass Amp]



[Robert Trujillo의 Ibanez 5string 베이스]

### Drum Setting

메탈리카의 리더로서 25년째 Tama만을 고집하고 있는 드러머 라스 울리히(Lars Ulrich)는 메탈리카 드럼 믹싱으로부터 근 대 락 공연의 큰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도 고등학교 재학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드럼과 리듬메이커들의 사운드를 들어 보았지만, 라스만큼 독창적인 드럼 사운드를 창조한 이는 없다. Trash metal의 트레이드 마크인 트윈 페달(twin pedal, 킥 드럼의 경우 대북이 하나이나 두 개인 경우보다 스피드 한 템포와 파워를 위해 트윈 페달을 사용하게 됐다)의 등장도 이쯤이 아닌가 싶다.

Lars Ulrich의 드럼 세팅은 “타마 드럼(Tama Artstar II Drums) + 레모 헤드(Remo heads) + 질지안 심벌(Zildjian Brilliant cymbals)”이다.



[Tama 드럼 세트를 연주하는 드러머 Lars Ulrich]

### SONG LIST

- |                          |                                |
|--------------------------|--------------------------------|
| The Ecstasy of Gold      | Guitar solo                    |
| Enter Sandman            | The Four Horsemen              |
| Creeping Death           | For Whom the Bell Tolls        |
| Harvester of Sorrow      | Fade to Black                  |
| Welcome Home(Sanitarium) | Whiplash                       |
| Sad But True             | Master of Puppets              |
| Wherever I May Roam      | Seek & Destroy                 |
| Bass Solo/Orion Jam      | One                            |
| Through the Never        | Last Caress(The Misfits cover) |
| The Unforgiven           | Am I Evil?(Diamond Head cover) |
| Justice Medley           | Battery                        |
| Drum solo                | Stone Cold Crazy(Queen cover)  |

## 글을 마치며

질풍노도의 시기를 끝마치는 무렵 필자에게 한손엔 졸업장과 청바지 포켓 속 메탈리카 테이프가 있었다. 어느덧 20여년이 흘러 그때의 인연을 찾아보려 고향집을 찾아가 보았을 때, 이미 삭아 버린 한줌의 마그네틱테이프를 연신 만지작거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무언가에 빠져있던 시절이 그림다는 표현이 아쉬울 정도로 하나의 뮤지션에 대해 것처럼 애착을 가졌었음에 매우 놀란다. 퇴물이 아닌 가끔은 지난 히트곡을 부르며, 지쳐하는 모습에 이제는 환호가 아닌 존경의 박수를 주고 싶다. 메탈리카. 그들은 분명 유년시절의 영웅이었으며 추억의 부산물이다. 그들의 대표곡 "Master of Puppets"을 다시금 꺼내어 들어본다.

## 참고 자료

- 관련 인터넷 사이트
- <http://www.metallica.com/>
- <http://www.metclub.com/>

- 참고문헌 및 자료
-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METALLICA"

- best album
- Kill 'Em All (1983)
- Ride the Lightning (1984)
- Master of Puppets (1986)
- ...And Justice for All (1988)
- Metallica (1991)
- Load (1996)
- ReLoad (1997)
- St. Anger (2003)
- Death Magnetic (2008)

- 역대 수상작
- Grammy Awards:
- 1990: Best Metal Performance – "One"
- 1991: Best Metal Performance – "Stone Cold Crazy"
- 1992: Best Metal Performance – Metallica
- 1999: Best Metal Performance – "Better than You"
- 2000: Best Hard Rock Performance – "Whiskey in the Jar"
- 2001: Best Rock Instrumental Performance – "The Call of Ktulu" with Michael Kamen and the San Francisco Symphony

- 2004: Best Metal Performance – "St. Anger"
- 2009: Best Metal Performance – "My Apocalypse"
- 2009: Best Recording Package – Death Magnetic

- MTV Video Music Awards:
- 1992: Best Metal Video – "Enter Sandman"
- 1996: Best Metal Video – "Until It Sleeps"

- American Music Awards:
- 1996: Favorite Artist: Heavy Metal/Hard Rock: Metallica – Load
- 1996: Favorite Metal/Hard Rock Song – "Until It Sleeps"

- Billboard Music Awards:
- 1997: Billboard Rock and Roll Artist of the Year – Metallica (RIAA Diamond Award)
- 1999: Catalogue Artist of the Year – Metallica
- 1999: Catalogue Album of the Year – Metallica
- 1993: (Live Shit: Binge & Purge, 1993) The Billboard 200차트 26위

- Kerrang! Awards:
- 2003: Hall of Fame – Metallica